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선구자



더 던 매거진

2025년 6월

목차

특집 기사	2
성령의 탄생.....	2
성경 공부	24
카인과 아벨의 제물	24
노아가 제단을 쌓다.....	29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다.....	34
이삭,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39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다.....	44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리.....	48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인.....	48

성경에서 따라하기

성령의 탄생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우리의 제목인 "성령으로 태어남"과 첫 구절에 등장하는 "거듭남"이라는 문구는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삶의 행실과 관계없이 죽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이 하늘의 상급을 보장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남" 또는 "거듭남"의 의미에 관한 다른 세부 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더 배우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1,2)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특징, 즉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 신성한 마련의 특징은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는 아버지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할 사람들은 먼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 생명의 특징 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이와 같으니라."

8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4절)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6절) 니고데모가 이 설명을 이해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생명과 관련된 탄생에 대한 생각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가서 문자 그대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사용됩니다. 탄생 또는 탄생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을 즉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삶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삶과는 매우 다른 삶으로, 그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3:2

성령의 탄생은 거듭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신약의 여러 저자들은 주님께 헌신한 신자들의 마음과 삶에서 성령의 사역의 이러한 측면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일부 성경 번역본은 저자들이 염두에 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육신에 있는 동안에도 영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오류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용된 그리스어에는 임신과 출산을 모두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겐나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문맥에 따라 출산 또는 출생이 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새 생명이 탄생하는 완전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데 사용된 헬라어는 '겐나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낳다'라는 단어는 39번 사용되었으며, 모든 경우에 '낳다'로 올바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명히 begat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고 사실이 아닌지! 이 성경의 예는 자연적인 인간 영역에서는 남성이

잉태하고 여성이 출산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둘 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데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그리스어 "겐나오"는 같은 구절에서 "태어나다"와 "태어났다"로 두 번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를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18)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번역자들은 두 경우 모두 "태어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유일한 명백한 이유는 번역의 문구를 덜 반복적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활로 태어난 지금-부활의 탄생

탄생 은유의 전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생명이 탄생하려면

먼저 수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배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발달시켜 적절한 시기에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임신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부활 안에서 새롭고 더 높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완성된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짧은 교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읽습니다. (야고보서

1:18) 이 구절은 출산이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정신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썩어질 씨로 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는 영원히 살아서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겐나오"는 "태어났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베드로가 "씨"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출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출산 과정에서 탄생이 아니라 씨앗에 의해 성취되는 것은 출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도는 새 생명의 시작, 즉 잉태를 말하는 것이지 탄생을 통한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육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옛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21)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비추신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도들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을 언급하실 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26, 16:13)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며,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성령이 신자의 삶 속에 직접 들어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항상 은혜 안에 있다"는 잘못된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된 생각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신자의 마음과 정신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더 생각해 봅시다. 잉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한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성령 잉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해 약간의 위로와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항복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식 능력을 진정으로 받기 위해 준비되기 위해서는 신성한 뜻과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충동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수가 신성한 차원에서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마련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 즉 씨앗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이러한 측면은 신자의 생각에 대한 그분의 생각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명령에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고 관련된 사람의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새로운 마음의 발전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원래의 창조와 인간이 거주할 땅의 준비와 관련하여 물 위에 움직였을 때는 그분의 권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통치할 사람들을 낳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여 이들에 관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채우셨고, 자신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도와 도움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섭리로 말씀과 접촉하게 된 개인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표현하신 대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굴복할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소중한 말씀에 "영광과 존귀와 불멸"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2:7) 그분은 이러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으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4) 성령께서 예수님께 영감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3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약속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의 세상을 위해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섭리, 즉 베드로가 '회복' 또는 지상에서의 생명 회복으로 묘사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창세 이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만물이 회복될 때"를 예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기쁘고, 이러한 지상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합니다. 사도행전 3:20,21

그러나 성경의 하늘 약속에 도달하려면 항복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영적 탄생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마태복음 7:14)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24) 우리는 또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의 권고를 기억합니다. (로마서 12:1) 이러한 하늘 부르심의 조건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신실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하고 그와

함께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4,6; 창세기 12:3; 22:18; 갈라디아서 3:8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다가오는 왕국에서 남은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 신성한 건축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온 세상의 구속자이자 구세주로 주신 그분의 사랑은 이들에게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합니다. (요한 3:16,17) 인류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고귀한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해 움직인다면 바울처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과 그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4,15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영감으로 영감을 받은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한 우리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집과 신성한 본성에 대한 감동적인 약속은 이전처럼 우리와 동떨어진, 단지 하나님의 계획의 흥미로운 특징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 생명을 주는 영향력이 됩니다. 하느님께 순복함으로써 그 씨앗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낳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18

새 생명의 기적

오직 신만이 나무를 만들 수 있듯이 모든 생명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적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기적을 목격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설계하신 조건에 따라 지구가 결국 인간 피조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순응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1:28).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이며, 여기에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된 특권입니다.

어떤 기적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기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은 오빠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부르셨을 때 죽은 자가 "나왔다"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43,44) 그러나 우주 전체에 나타난 창조 기적은 성취를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잉태와 탄생의 기적도 오랜 기간에 걸쳐 펼쳐집니다.

생육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서 숙고하고 독자의 선택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는 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실 수 있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게다가 자신의 마음이 로봇처럼 강요된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생식의 씨앗의 마음에 들어갈 준비를하기 위해 삶의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지만 각자는 이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므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영의 잉태를 준비하는 이 일은 잉태의 씨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준비된 것처럼 기적적인 일입니다. 모든 신생아의 탄생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이 특징에서 하나님의 역할의 모든 측면은 기적이었으며 지금도 기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 표현된 하느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준 사람들의 경우, 영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

계속 충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지식 속에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0

성경은 잉태와 탄생의 모습에 따라 배아의 새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짐을 밝힙니다. 우리의 새로운 영적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자랍니다. 영적 성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신성한 형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평화, 기쁨, 오래 참음,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열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갈라디아서 5:22,23; 벧후 1:5-7) 바울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 하나님을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23,24

새 생명이 탄생할 준비가 될 정도로 발달하면 우리의 부패한 몸은 죽음으로 들어가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고전 15:53,54) 여기서 하나님의 영, 즉 능력이 더욱 발휘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거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상징을 사용하자면 성령의 탄생을 가져오는 데 사용된 이 강력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놀랍고도 위대함'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예의 자리에 앉히신 것과 같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19,20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부활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8)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먼저 태어나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성도들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12) 신성한 능력이 이들을 하늘의 생명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썩지 않고 불멸하는 천상의 몸, 즉 하늘의 몸이 주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40-44,53-58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을 아담의 종족 모두가 하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살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3, 마태복음 4:17)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약속된 아버지의 왕국에서 하늘의 통치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왕국이나 정부에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현 시대의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이 위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즉 그의 참된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첫 번째 부활'에서 이 새로운 탄생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20:5,6) 그러면 회복된 인간의 생명인 하나님의 회복 생명에 대한 약속이 하늘에서 땅의 모든 가족에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3:14-17; 요한계시록 21:2-5

카인과 아벨의 제물

핵심 구절: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왜 그렇게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행하면 너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옳은 일을 거부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죄가 당신을 지배하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창세기 4:6,7

선택한 성구:

창세기 4:1-25

타락한 인류에게 질투는 인류의 시작부터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도덕적 드라마는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 의로운 삶을 키우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이 이야기의 교훈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출산이라는 선물에 감격하고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아담과 이브는 또 다른 아들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제 가인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벨에 대한 질투의 초기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벨은 양을 키웠고 가인은 땅을 경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주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그날 가장 먼저 주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물이 탁월하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벨은 자신의 제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모두 존중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것에 분노하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받아들여진 것은 단순히 "땅의 열매"가 아닌 동물 제물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곡물, 기름,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에서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부당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불타오르며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이 경건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이며,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살해한 가인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그의

행위는 악했고 형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11,12

따라서 주님께서 가인을 거부하신 이유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비로우신 주님은 가인에게 "왜 화를 내느냐? 왜 그렇게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행하면 너는 받아 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옳은 일을 거부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죄가 당신을 통제하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정복하고 그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6,7

우리 모두는 가인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는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죄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죄에 저항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과 쉽게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믿음의 선구자이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합시다. ... 죄인들의 그러한 반대를 견디신 그분을 생각하여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1-4

노아가 제단을 쌓다

핵심 구절: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에 두었으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창세기 9:13

선택한 성경 구절:

창세기 8:20-22; 9:8-17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에 감사하며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했습니다. 홍수로 타락한 인류는 멸망했고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뿐이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5) 노아는 성경적으로 깨끗하다고 알려진 동물들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치우친 인간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선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 8:21

우리는 노아의 새 출발에 대한 마음의 열망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평가에 주목합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괴롭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술에 족쇄를 채워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무에서 유'는 신학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를

긍정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3

하나님은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인 원자와 그 모든 변종의 복잡성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들어간 생각의 깊이에 감탄합니다.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인 물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는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두 개를 더하여 액체, 기체, 고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고체 형태인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이 특성이 없다면 지구의 물은 대부분 일 년 내내 얼어붙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신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또한 구름()으로 모여 수백만 파운드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지구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며 아래 땅을 적셔줍니다.

구름이 소중한 비를 내리면 그 사이로 햇빛이 비칩니다. 물방울은 빛을 굴절시키고 다양한

파장으로 분리하여 무지개의 이미지와 화려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설계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18)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무지개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가 구름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9:16,12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베드로후서 3:13) 의가 거하는 땅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10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다

핵심 구절: "아브라함이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주실-산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제공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22:14

선택한 성구:

창세기 22:1-18

핵심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하고 자주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어야 했던 감정적 트라우마,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삭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 중요한 순간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해설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쓰라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라는 귀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순종하고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 버리지 않았으니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리라. 당신의 후손은 적들의 도시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당신이 내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16-18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지극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증거를 따르지 않으실 것이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끄신 장소를 보고 하인들에게 "당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소년과 나는 조금 더

멀리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22:5). 아브라함은 "우리"를 복수형으로 "바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 장소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내 아버지여!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번제용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갔어요." 창세기 22:7,8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근처에는 덩불에 가시덩불에 갇혀 있던 숫양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숫양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 희생된 양이나 수송아지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제사를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셨고, 숫양은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9-13절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공급하실 것이며, 실제로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17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고 인간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생명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요한복음 1:29)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서신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의 전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을 의롭게 하실 것을 예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시며 이르시되 네게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8

이삭,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핵심 구절: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26:25

선택한 성구:

창세기 26:16-33

핵심 구절은 기근의 시기에 이삭의 체류가 절정에 달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의 꾸준한 흐름으로 식량과 물이 거의 보장되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2:10 참조) 그러나 이삭은 여호와로부터 약속의 땅에 남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물을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삭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교훈의 요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기근에서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이작은 아버지가 그 땅에 파놓은 우물을 떠올리며 그 우물을 찾아 그 소중한 물을 다시 흐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는 그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26:17,18; 21:25-31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존경과 명예는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과거의 명칭에 따라 짓고자 하는 열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거리에서서 바라보고, 옛길을 물으며 좋은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16)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옛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생수가 솟아나는 지상에서 가장 깊은 물의 우물인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삭은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으로 물이 솟아나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지역 목동들()이 "그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의 하인들과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분쟁"이라는 뜻의 *에섹*이라고 적절하게 부르며 그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하인들이 다음

우물을 팠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랄의 목동들은 그들과 다투었고,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반대"라는 뜻의 *싯나라고* 부르며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끈기와 믿음은 이삭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고, 그는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창세기 26:19-21

새로 수리한 세 번째 우물에서도 물이 나왔고 우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다툼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넓은 곳"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간을 마련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22절) 이 기쁨은 시편 기자가 "그가 또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사 나를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한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시편 18:19) 따라서 이삭은 영감을 받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대의 부정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인 성경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릅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다

핵심 구절: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 밑에 놓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8:18,19

선택한 성구:
창세기 28:10-22

오늘의 핵심 구절은 끔찍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면전에서 도망쳤습니다. 형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의도는 살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수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삭의 집안 식구들 중 몇몇이 이 말을

듣고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레베카는 야곱에게 밧단아람에 있는 형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레베카는 주님의 뜻이 야곱을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는 이삭의 의도를 알게 된 그녀는 야곱과 다음과 같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말하는 대로 하거라. 양떼에게 나가서 좋은 어린 염소 두 마리를 가져와라.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 주마. 그리고 그 음식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창세기 27:8-10

야곱은 어머니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내 피부는 매끈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버지를 속이려는 것을 아시고 축복 대신 저주하실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럼 저주가 내게 떨어지도록 내버려둬라,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가서 염소를 잡아 오너라!" 11~13절

헛된 말은 종종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당신의 저주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던 야곱은 어느 곳에 이르렀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잠을 청하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장소에 이르러 밤새도록 그곳에 머물렀는데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얹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세워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11,12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또한 네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너와 네 자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리라."

13-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베개로 쓰이던 돌을 가져다가 제단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의 기초가 되는 기름 부음 받은 반석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반석이신 기름부음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인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교훈을 알아 그의 죽으심과 합치되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3:10

신성한 권위에 대한 묵인의 개념에는 받아들여진 표준이나 패턴에 복종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신성한 가족과 인류 가운데서 구속받은 '작은 무리'가 궁극적으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눅 12:32, 로마서 2:7) 이 클래스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아신 자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29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귀한 보상에 이르는 길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성경의 증언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되고 올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1,2

충성도

충성심은 묵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부분적인 동정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충실한 충성을 나타냅니다. 신자들은 세상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의의 원칙에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36)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현재의 악한 세상"과 연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1:4) 또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종종 빛의 천사로 나타나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14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풍성하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3:20) 위대한 대적의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는 태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은 자발적이고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를 아는 법을 배웠으며, 이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의 대의의 완전성에 대해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왕과 선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해야 하며, 그분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쾌하게 할 생각에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용기

용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필수적인 자질이지만, 자신감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실 은혜와 힘을 구한다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16, 잠언 3:5,6)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의 선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힘으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참으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3,4

좋은 군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1,3) 우리가 봉사하는 대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자유의지로 자기 희생적인

노력으로 구원의 대장과 협력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10) 크리스천 군인으로서 우리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의 타당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완전해서 우리가 왜 특정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항상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지혜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28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통해 계시된 성령의 영향력은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에 충실히 적용될 때 의로운 성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13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점점 더 '변화'되고 있으며, '진리의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로마서 12:2, 야고보서 1:18, 요한복음 17:17)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나 신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압력이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4:12, 고린도전서 4:2)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반드시 이끌려서는 안 되며, 옛 고귀한 베레아인들처럼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모든 것을 증명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1; 사도행전 17:11

안디옥의 편견

그리스도인 교제 안에서 생각이나 행동의 일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거나 동료 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지 지나치게 고려할 때, 우리는 강력한 교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21절에서 바울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사도로 여겼던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안디옥에 왔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던 개종자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 한 무리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과 그곳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전해질까 봐 이방인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회심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편파성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34) 따라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거부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이 "믿음의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로마서 4:13) 바울은 적절하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희생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지적함으로써 베드로의 위선을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누구도 의롭게 할 수 없으므로 이방인을 율법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14-21

베드로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의 기둥인 사람이 일부 유대인 형제들이 가진 부적절한 신앙의 영향에 부당하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묵인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개별 교회, 즉 교회는 우리가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양육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매우 특별한 마련입니다. 우리는 서로 공부할 때 공부하는 내용의 사실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정신도 고려해야 합니다. 로마서 2:28,29; 7:5,6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 구절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성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 그릇에 새 피조물이라는 보물을 담고 있고 주님을 섬기려는 열망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형제애의 다른 지체와 다르게 자신을 표현할 때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17, 4:7) 육신을 따라 겉모습을 보지 말고,
56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우리처럼 육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보석들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도록 양심적으로 노력하며,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무엘상 16:7; 고린도후서 10:7

기독교 자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진리의 항목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성구가 실제로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해야 한다고 믿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해 주실 때까지 형제들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각의

정확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경이 선언한 대로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완전히 설득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5

신약 초기부터 주님의 백성의 회중이 여러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임의 설립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딤후 3:1-7; 딤후 1:5-9; 베드로전서 5:1-3) 장로든 집사든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투표를 통해 봉사 직책에 선출됩니다. 따라서 회중을 더 높은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습니다. 특정 정책이나 관행에 관한 당회의 판단이 장로의 판단과 다른 경우, 장로는 근본적인 교리, 도덕적 문제 또는 양심 위반이 아닌 교회 선호도의 문제인 경우 당회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신뢰하는 장로를 선출하는 책임에 따라 주님께서는 회중의 투표로 특정 개인이 선출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신실한

58 새벽

태도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로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전체 그룹의 의무일 것입니다.

파티 정신

그리스도의 몸의 동료 지체들 간에 경쟁심이나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13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서로 화목하게 살 것을 호소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생각과 목적이 일치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클로이의 집안 식구들 중 일부가 여러분의 다툼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분파로 나뉘었나요? 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 중에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분열은 특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기회를 방해하려는 압력이 가해진다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물리적인 분리가 필요한 매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로 인정하는 한, 종파적 정신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사소한 차이로 인해 일부 형제가 우리의 교제에 합당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몸의 연합 교리에 반하는 정신을 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은 우리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인이 현저히 부족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편 133:1-3; 에베소서 4:1-3,15,16; 빌립보서 2:3

아이돌

앞서 언급한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사역에서 우리 리더의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9:10을 읽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의 발 앞에 엎드렸지만 그는 말하기를, 아니, 나를 경배하지 말라. 나도 여러분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처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예언의 본질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특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실한 지체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충실한 노력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5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실격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도 같은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며 영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헛된 관념에 부풀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18)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적절한 정신이며,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한 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압력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력과 관련하여, 우리 육신에는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2,3). 죄가 아닌 문화, 레크리에이션, 취미와 관련된 많은 활동은 육체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율법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정 금지 사항과 달리 신약 성경에는 신자들의 행위와 관련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타난 사랑의 법과 의의 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중 누구도 서로를 위해 일련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추구가 육체를 만족시키는지, 희생과 헌신적인 삶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적 지침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특정 활동이 교화하고 고상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최대한 그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런 좋은 일이라도 희생의 제단에 올려놓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우리의 거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백성은 모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청지기로 받은 재정적 자원도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각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련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종종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백성도 집의 외관과 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영향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편안하게 수용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현재 거처를 대대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다른 형제자매가 이 노선을 따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참여나 활동이 우리가 맺은 희생의 언약을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공간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우리 중 일부는 육체에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우 유리한 직업 기회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일정이나 먼 곳에서 일해야 할 수도 있으며, 궁극적인 결과는 영적인 교제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특정 모임에 불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묵인하는 데 의지해야 합니다. 육체가 처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반면에 빌립을 사막으로 보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 때처럼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26-38) 물론 이 선상에서 각자의 경험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노선을 따라 딱딱하고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8) 이 외에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답은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단계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데 있어 다음 네 가지 중요한 단계를 고려하세요.

1.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주 연구합니다. (딤후 2:15)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므로, 우리 삶에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를 구하고 우리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신성한 원리를 숙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경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느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우선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친교와 공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교회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권고를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25)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르게 행사한다면 서로의 공헌이 상호 영적 힘과 교화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종류의 상호 작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동의 공급"을 받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계 교우들 및 형제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영을 경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16

3. 희생의 삶을 살라. 자기 부인의 정도가 클수록 원수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탐욕의 영에 덜

노출되어 하나님의 뜻을 묵인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성령의 영향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주님이 걸으신 것처럼 걷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요한일서 2:16

4. 자주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마음속에 우상을 세운 것을 발견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본문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 특히 주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은혜의 보좌에 가서 정화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우 민감하다면,

우리가 어떤 무분별한 일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기도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주의 종도 고의적 인 죄에서 지켜 주시고 그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흠이없고 큰 범 죄에서 무죄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13,14

우리가 신성한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명철과 가르침을 주는 마음이 있나이다." 시편 111:10